

##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오 주 령

박 지 선<sup>†</sup>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데이트폭력은 최근 그 심각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으나, 여전히 관련 연구가 희소하고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실태조사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범죄자 처벌 및 양형 기준, 관련 법 제정 등 형사사법 제도나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일은 해당 범죄가 실제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실태조사와는 별개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즉 데이트폭력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성인남녀 총 203명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네 가지 하위유형(통제행동,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각각에 대한 시나리오를 제시한 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였다. 더불어,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데이트폭력이라는 사회문제를 매우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남성 피해자의 성적 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제외하고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이 데이트폭력 상황이 현실에서 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심한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나타냈다. 더불어,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경쟁적 성분화가 통제행동과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과 관련이 있으며, 성별 또한 심리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으로, 본 연구의 함의와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 성차, 양가적 성차별주의, 경쟁적 성분화

<sup>†</sup> 교신저자 : 박지선, 숙명여대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 용산구 청파로 47길 100

Tel: 02-2077-7832, E-mail: jsirispark@hotmail.com

최근 몇 년 간 심각한 데이트폭력 사례가 대중매체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빈번히 보도되어 왔다. 경찰청에서 국회에 제출한 2013~2017년 연도별 데이트폭력 현황을 보면, 2017년 전국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총 1만 건이 넘으며, 2016년의 8천여 건보다 약 23%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태규, 2018).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의 형태는 폭행, 상해, 감금 및 협박, 성폭력, 살인 등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아우른다. 또한, 대검찰청에서 발행한 범죄분석 통계(2017)에서 애인을 대상으로 행해진 범죄의 유형과 빈도를 살펴보면,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서는 1,015명(4.1%)이 애인에게 성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애인으로부터 폭행 및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도 4.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살인범죄에서는 피해자의 10.7%가 가해자와 애인 관계였던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처럼 언론보도를 통해서나 국가기관의 공식통계 보고를 통해서 본 데이트폭력의 상황은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수준이며, 공식 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암수범죄의 존재를 고려하였을 때 현실에서 데이트폭력 피해를 경험하는 사람의 수는 공식통계에 발표된 수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데이트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관계의 특성상,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들이 데이트폭력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상당 수 존재한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더불어, 보복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나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신고 되지 않는 데이트폭력의 수까지 고려할 때, 공식통계로 집계되지 않은 데이트폭력 범죄는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이

슈화되어 가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효율적 대처 및 실질적 예방을 위한 정책 마련과 법 개정이 촉구되어 왔다. 특히 국내에서 이러한 데이트폭력을 예방하고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데이트폭력 방지법’ 등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관련 법 제정은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법 제정이나 법 집행 기관의 예방 및 대응에 있어, 해당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법 감정과 여론 등 다양한 형태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나 양형 등의 형사사법 제도 및 정책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박순진, 2017; 박지선, 박상조, 2013). 이에, 범죄에 대해 사람들이 어떠한 인식을 갖는지를 다루는 여러 선행 연구들은 성범죄를 비롯하여(심정신, 이영숙, 오수희, 2012), 스토킹범죄(조무용, 김정인, 2016), 동물학대(김혜선, 박지선, 2018), 성희롱(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 불법촬영(홍영오, 박지선, 2018) 등 다양한 종류의 범죄를 주제로 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분석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관련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인 데이트폭력을 대상으로 해서, 사람들이 데이트폭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심각성과 발생빈도 등에 관한 인식을 연구하고자 한다. 더불어, 이러한 데이트폭력 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 궁극적으로 데이트폭력 예방 및 관련 대응 방안 모색에 기여하고자 한다.

#### 데이트폭력의 정의 및 유형

데이트폭력의 정의 및 유형은 학자들마다

상이하나, 여러 선행 연구(이영숙, 1998; 홍영오 외, 2015; Straus, 2004)에서는 데이트 관계, 즉 연인 혹은 이성친구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중 적어도 한 명이 다른 사람에게 심리적, 신체적, 성적 폭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데이트폭력의 유형으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은 전형적으로 포함되어 왔다(오윤희, 임성문, 2018; 최연숙, 이은희, 이은주, 2017). 신체적인 폭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심리적 폭력도 연구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심리적 폭력 또한 데이트폭력의 하위유형으로 비교적 빈번히 연구되어 왔다(서경현, 2009; 손연우, 권호인, 2018; 이윤연, 장현아, 2017). 그런데 최근 들어,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통제행동을 추가해야한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국외에서는 이미 Ronfeldt, Kimerling, Arias(1998)가 데이트폭력의 핵심은 데이트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폭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가시적인 폭력이 아니더라도 통제행동 그 자체를 데이트폭력에 포함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세계 보건 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에서도 통제행동을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포함시켰으며, 국내에서도 통제행동을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포함하는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신지연, 최수미, 2017).

지금까지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데이트폭력의 실태에 대한 사례분석이나(박경은, 2017; 오세연, 곽영길, 2011), 데이트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와 관계된 변인을 조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박경은(2017)은 성인 남성 9명을 대상으로 심리적 데이트폭력에 관한 경험을 분석하였으며, 박경은과 유영권(2017)은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적

내면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피해여성들의 데이트폭력 수용성과 성역할태도와 같은 변인들이 관계를 지속하거나 벗어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설명하였다. Rusbult(1998)는 투자모델이라는 개념을 통해 데이트관계의 유지 및 중단을 설명하였는데, 그에 따르면 개인은 데이트 관계의 유지 여부를 평가할 때, 관계의 만족도와 심리적 물질적 자원의 투자 정도, 관계의 대안, 그리고 관계에 의존하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헌신 욕구를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2007)은 이타적 망상이라는 데이트 파트너의 폭력적인 성향을 자신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현실적인 믿음이라는 개념을 추가하여 폭력적인 데이트관계 지속에 대한 투자모델의 설명력을 높였다. 또한 김시원과 박경(2012)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과의 관계를 역기능적 분노가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보다 최근에 손강숙과 정소미(2016)는 여대생의 데이트폭력허용도가 성역할 고정관념과는 정적 상관을, 성적 자기주장과는 부적 상관을 가진다고 보고하였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와와의 관계를 성적 자기주장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데이트폭력의 사례 조사 및 데이트폭력 피해와 가해 요인을 밝히는 연구는 존재하여 왔으나,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희소한 실정이다.

#### 데이트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애인관계에서는 폭력의 위험신호들을 잘 지각하지 못하거나, 폭력행동을 연인 사이의 다툼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데이트폭력이 발생하더라도 애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2010)은 데이트폭력 인식을 특정 행위가 폭력적이라고 분명하게 인지하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데이트폭력 심각성 인식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처럼 기존의 데이트폭력 인식에 대한 연구들은 애인관계에서 데이트폭력의 폭력성을 인지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진행되어왔다.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본 국외의 연구들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서 데이트폭력 심각성 인식을 조사하거나(Basow et al., 2007; Cappelz & Arriaga, 2008), 폭력 가해자의 성별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사람들의 책임과 비난, 법적 처분의 필요성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연구하였다(Sorenson & Taylor, 2005). 그러나 국내에서 데이트폭력 인식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하예지와 서미경(2014)은 데이트폭력 경험자를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허용도의 인식 차이를 조사하였고,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2010)은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데이트폭력 행동과 관계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는 데이트폭력 경험을 한 사람들에게 한정하여 데이트폭력의 심각성과 허용도를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즉, 데이트폭력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 그 중에서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및 발생빈도 인식을 조사하고,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해 탐구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중들의 데이트폭력 심각성과 발생빈도 인식을 조사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을 밝혀냄으로써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를 확장

하고자 한다.

#### 데이트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데이트폭력을 겪고 그 관계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러 연구에서 조사되어 왔다(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이은숙, 강희순, 2014). 성역할 고정관념이라는 개념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사회적 범주에 개인적인 속성들을 연결시킨 개념으로서, 남성은 독립적이고 지배적이며 경쟁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반면, 여성은 친절하고 애정이 넘치며, 협동적인 역할을 하도록 기대하는 것이라고 정의된다(Williams & Best, 1990). 심정신 등(2012)의 연구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대학생이 낮은 대학생에 비하여 성폭력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은숙과 강희순(2014)의 연구에서도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은 사람일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인 편견을 단일 차원으로만 이해하려는 것은 성차별적 인식을 더 넓은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Glick와 Fiske(1996)는 남성이 여성에 관하여 양면적으로 형성된 성차별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양가적 성차별주의라는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Fiske, Xu, Cuddy, & Glick(1999)는 연구를 통해 고정관념의 내용이 체계적이고 양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는데, 특히 전통적인 여성상에 대한 편견과 직업을 갖고 그것에 종사하고 있는 현대적인 여성상에 대한 부러움의 편견은 양면적인 성차별을 초래하는 요인이라고 주장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남성에게 질시와 애정이 뒤섞인 양가적인 시선을 동시

에 가지고 있으며, 남성의 태도가 한편으로는 적대적인 동시에 호의적인 감정 또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개념이다(안상수, 김해숙, 안미영, 2005). 양가적 성차별주의는 두 하위 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 차원은 적대적 성차별주의로서, 기존의 관습적인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에 도전하는 여성들에 대한 노골적이고 적대적인 비난과 부정적 태도를 가리킨다(안상수 등, 2005). 두 번째 하위차원인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을 우대하고 존중하는 듯 보이지만, 은밀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로서 여성들에게 전통적인 성역할을 하게끔 칭찬을 하고 보상을 줌으로써 기존의 남성 중심적인 사회구조를 유지하게 만드는 태도를 의미한다(안상수 등, 2005).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범죄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선행연구에서 나타났다(김재은, 김지현, 2016; 서윤정, 박지선, 2013; 윤병해, 고재홍, 2006; Abrams, Vikim Masser, & Bohner, 2003). Abrams와 동료들(2003)의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온정적 성차별이 법적 판단과 피해자, 가해자 비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온정적 성차별 태도가 강한 사람들은 아는 사람에 의한 강간 사건을 판단할 때 가해자를 덜 비난했으며, 더 짧은 법적 형량을 부과하였다. 또한 윤병해 등(2006)의 연구에서는 적대적 성차별태도가 높을수록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성 피해자를 더 많이 비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윤정 등(2013)의 연구에서도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할수록, 성범죄 사건 인식에서 피해자에게 더 책임이 있다고 보고 가해자에 대해서 가벼운 형을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별을 조사한 선행 연구들이 꾸준히 존재해왔다. 서윤정 등(2013)의 연구에서도 범죄에 대한 인식에 성차가 존재하였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성범죄 인식간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 성범죄 인식에 온정적 성차별주의가 영향을 미쳐 피해자에게 더 책임을 전가하고, 덜 공감하며 가해자에게 가벼운 양형판단을 하였다.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인식도와 허용도의 관계를 연구한 이은숙과 강희순(2014)의 연구에서도 여성보다 남성의 성역할 고정관념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폭력 인식을 어렵게 만들고 성폭력 허용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2017)의 단체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연구에서도 언어적 성폭력 사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성차가 나타났으며,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태도와 인식을 다룬 선행연구들(윤병해 등, 2006)과도 일치하는 연구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국내외 연구결과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별이 범죄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 연구 주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연구되던 데이트폭력 유형인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외에, 통제행동을 추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먼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 즉 데이트폭력의 발생 빈도에 대한 인식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선행 연구들

에서 범죄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 연구 참가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데이트폭력 심각성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2: 연구 참가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데이트폭력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3: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라 양가적 성차별주의 수준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연구문제 4: 성별 및 양가적성차별주의가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방 법

### 연구대상

수도권 거주 성인남녀 총 206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가자들은 서울 소재 대학 내의 게시판과 대학생 커뮤니티 등에서 모집되었다. 설문 응답에 동의한 참가자들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지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분석을 실시하기 전 불성실 응답으로 파악된 3부가 제외되어 총 203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참가자의 성별은 여성이 104명(51.2%), 남성이 99명(48.8%)으로 나타났고, 연령은 최소 만 19세에서 최대 만 30세였으며, 평균연령은 만 23세(SD=2.5)였다. 연령분포는 만 19세에서 24세가 총 연구대상의 72.3%에 해당하였고, 그 외 만 28세(1.0%), 만 29세(0.5%), 만 30세(1.5%)의 경우 적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본 연구는 저자들의 소속 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되었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소정의 보상을 지급하였다.

### 측정 도구

#### 데이트폭력 시나리오

데이트폭력의 하위 유형인 통제행동,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4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나리오는 손문숙과 조재연(2016)의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에 보고된 데이트폭력 유형별 피해 빈도가 높은 행동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홍영오, 2017)에서 보고한 데이트폭력 가해 빈도가 높은 행동에서 중복되는 행동들을 토대로 데이트폭력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데이트폭력 하위유형과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별만 다를 뿐 연령과 교제기간 등을 동일하게 구성하였고, 20~30대 남녀를 대상으로 시나리오가 데이트폭력을 적절히 묘사하고 있는지 파일럿 조사를 실시한 뒤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사용된 시나리오는 각각 다음과 같다.

#### - 데이트 폭력 유형: 통제행동

진혁(나영)과 나영(진혁)은 둘 다 20대로 사귀어 온지 1년이 넘는 연인 관계이다. 진혁과 나영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지만, 항상 진혁(나영)은 나영(진혁)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확인하고는 했다. 또한 나영(진혁)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통화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나영(진혁)에게 전화를 하였고, 나영(진혁)의 옷차림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옷을 입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진혁(나영)은 나영(진혁)이 하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진혁(나영)의 요구대로 나영(진혁)의 일을 그만 두게 만든 적이 있다.

- 데이트 폭력 유형: 심리적 폭력

동민(수진)과 수진(동민)은 둘 다 20대로 사귀어 온지 1년이 넘는 연인 관계이다. 동민과 수진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지만, 동민(수진)은 수진(동민)과 의견이 달라 다투게 되면 수진(동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수진(동민)이 동민(수진)을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소리를 지르거나, 수진(동민)이 자기자신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수진(동민)을 비난한 적이 있다. 또한 동민(수진)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동민(수진)은 “너 때문이야”라며 수진(동민)의 탓을 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일이 있고 난 후에는 문을 큰 소리가 날 정도로 세계 닫고 그 장소를 떠나고는 한다.

- 데이트 폭력 유형: 신체적 폭력

승훈(민아)과 민아(승훈)는 둘 다 20대로 사귀어 온지 1년이 넘는 연인 관계이다. 승훈과 민아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지만, 승훈(민아)은 민아(승훈)와 의견이 달라 다투게 되면 민아(승훈)를 세계 밀치거나 민아(승훈)의 팔을 비틀거나 꼬집고는 하며, 민아(승훈)의 몸을 힘껏 움켜잡은 적도 있다. 한 번은 민아(승훈)의 머리채를 잡거나 뺨을 때린 적도 있다.

- 데이트 폭력 유형: 성적 폭력

진수(민희)와 민희(진수)는 둘 다 20대로 사귀어 온지 1년이 넘는 연인 관계이다. 진수와 민희의 관계는 원만한 편이지만, 진수(민희)는 민희(진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민희(진수)의 얼굴이나 팔, 다리 등을 만지고는 하며 가끔은 민희(진수)의 의사에 상관없이 엉덩이나 성기

를 만진 적도 있다. 그리고 진수(민희)는 민희(진수)의 기분을 신경 쓰지 않고 민희(진수)에게 키스를 하거나, 민희(진수)가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무를 하기도 한다.

**데이트폭력 심각성 인식**

연구의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따른 심각성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제시된 시나리오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여기는지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심각성 정도를 전혀 심각하지 않다(1점)부터 매우 심각하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

연구의 참가자들이 인식하는 데이트폭력의 유형에 따른 발생빈도를 조사하기 위해 제시된 시나리오의 상황이 현실에서 얼마나 발생할 것 같은지 묻는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발생빈도를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1점)부터 매우 흔하게 발생한다(5점)까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주의**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안상수, 김해숙, 안미영(2005)이 표준화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D)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해당 척도는 적대적 성차별주의와 온정적 성차별주의라는 두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차원은 3가지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적대적 성차별주의는 여성이 남성만큼의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우월한 남성성에 대한 신념에 관한 ‘지배적 남성주의’, 여성

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이기에 여성을 하향 비교의 대상으로 여기고, 여성을 자존감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보는 신념을 측정하는 '경쟁적 성역할분화', 이성 관계에서 여성은 관계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 남성에게 성적 유혹을 사용한다는 반감에 기초한 태도를 측정하는 '적대적 이성애'라는 하위 척도들로 구성되어 있다(안상수 등, 2005). 본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50$ 이다.

온정적 성차별주의는 남성보다 연약한 존재라고 인식되는 여성을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신념을 측정하는 '보호적 부성주의', 여성과 남성은 상호보완적 특성을 지닌 존재이며, 각자의 성별에게 적합한 역할과 특성이 존재한다고 여기는 신념을 측정하는 '보완적 성역할분화', 남성은 여성 없이는 완전할 수 없다는 태도를 가리키는 '친밀한 이성애'라는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안상수 등, 2005). 본 연구에서 보고된 온정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26$ 이다.

문항들은 각 하위요인당 18문항씩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시된 문항들에 대하여 참가자가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부터 매우 동의한다(5점)까지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주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보고된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의 내적일치도는 Cronbach's  $\alpha = .957$ 이다.

#### 분석방법

자료분석은 SPSS 23.0을 사용하였으며, 기술 분석, 상관관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 일원분산분석, 그리고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데이트

폭력 인식과 성별,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성별 변수에 대해서는 더미 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으며(여성 = 0, 남성 = 1), 조사 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  $\alpha$  계수를 산출하였다.

## 결 과

### 데이트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

연구문제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데이트폭력에 대한 심각성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데이트폭력 유형별 심각성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성별 및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신체적 폭력을 가장 심각한 데이트폭력이라고 평가하였다( $M=4.85$ ,  $SD=.454$ ). 두 번째로는 심리적 폭력을 심각하다고 평가하였으나( $M=4.65$ ,  $SD=.574$ ), 성적 폭력의 심각성 평가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M=4.60$ ,  $SD=.693$ ). 또한, 통제행동에 대한 심각성 평가는 네 가지 유형 중에는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평균 4.36( $SD=.811$ )으로 여전히 심각하게 인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가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심각성 인식에 있어서는 유일하게 성적 폭력의 심각성 평가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 응답자가 평가한 남성 피해자의 심각성이 여성 응답자가 평가한 여성 피해자의 심각성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F(3,199)=3.93$ ,  $p=.009$ ). 이를 제외하면 다른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데이트폭력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

연구문제 2를 검증하기 위하여 집단을 독립변인으로,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데이트폭력 유형별 발생빈도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성별 및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성적 폭력 및 통제행동의 발생빈도를 가장 높게 추정하였다(각각  $M=3.61$ ,

$SD=1.09$ ,  $M=3.59$ ,  $SD=.97$ ). 세 번째로는 심리적 폭력의 발생 빈도를 높게 추정하였다( $M=3.44$ ,  $SD=.574$ ). 한편, 신체적 폭력의 발생 빈도를  $M=3.06$ ,  $SD=.93$ 으로 가장 낮게 추정하였다.

네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 모두 연구 참가자와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발생빈도 인식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또한 Scheffe 사후분석을 통해 어떤 집단끼리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데

표 1. 데이트폭력 심각도 및 발생 빈도 인식에 대한 기술통계

유형	집단	심각성 인식 M(SD)	발생 빈도 인식 M(SD)
통제행동	여성응답자-여성피해자	4.67(.51)	4.08(.84)
	여성응답자-남성피해자	4.31(.96)	3.85(.80)
	남성응답자-여성피해자	4.27(.88)	3.18(.93)
	남성응답자-남성피해자	4.18(.75)	3.20(.99)
	합계	4.36(.81)	3.59(.97)
심리적 폭력	여성응답자-여성피해자	4.81(.40)	3.85(.78)
	여성응답자-남성피해자	4.48(.73)	3.92(.81)
	남성응답자-여성피해자	4.71(.50)	2.96(.96)
	남성응답자-남성피해자	4.58(.58)	3.00(.86)
	합계	4.65(.57)	3.44(.96)
신체적 폭력	여성응답자-여성피해자	4.98(.14)	3.38(.87)
	여성응답자-남성피해자	4.71(.64)	3.52(.90)
	남성응답자-여성피해자	4.90(.42)	2.73(.88)
	남성응답자-남성피해자	4.82(.44)	2.58(.73)
	합계	4.85(.45)	3.06(.93)
성적 폭력	여성응답자-여성피해자	4.83(.43)	4.27(.74)
	여성응답자-남성피해자	4.65(.59)	4.06(.90)
	남성응답자-여성피해자	4.49(.79)	3.41(.96)
	남성응답자-남성피해자	4.40(.83)	2.66(.98)
	합계	4.60(.69)	3.61(1.09)

표 2.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에 대한 일원분산분석 결과

유형	제공합	df	평균제공	F	Scheffe 검증 결과
통계행동	집단-간	31.43	3	10.48	13.21*** 여성응답자 > 남성응답자
	집단-내	157.81	199	.79	
	합계	189.24			
심리적 폭력	집단-간	41.72	3	13.91	19.17*** 여성응답자 > 남성응답자
	집단-내	144.38	199	.73	
	합계	186.10			
신체적 폭력	집단-간	33.15	3	11.05	15.37*** 여성응답자 > 남성응답자
	집단-내	143.02	199	.72	
	합계	176.17			
성적 폭력	집단-간	80.14	3	26.71	33.20*** 여성응답자 > 남성응답자
	집단-내	160.11	199	.81	
	합계	240.26			

\*\*\* p<.001

이트폭력 피해자의 성별과는 관계없이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성 응답자의 경우, 네 가지 유형의 데이트폭력 모두에서 각각의 발생빈도를 여성 응답자보다 유의하게 낮게 추정하였다.

#### 성별에 따른 양가적 성차별주의 차이

연구문제 1과 2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성별에 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표 3). 먼저, 여성과 남성 모두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간주하는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보다 더 많이 보였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 여성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적대적 성차별주의 점수 또한 높게 나타났다.

적대적 성차별주의(HS)와 온정적 성차별주의(BS) 둘 다에 있어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여성에 비해 남성이 유의하게 더 높은 적대적 성차별주의 태도를 보였다. 온정적 성차별주의 역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구성요인인 지배적 여성주의, 경쟁적 성역할분화, 적대적 이성애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하위 구성요인인 보호적 여성주의, 보완적 성역할분화, 친밀한 이성애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차별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성차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척도	여성 M(SD)	남성 M(SD)	t	df
적대적 성차별주의	22.76(7.82)	43.93(13.55)	-13.54***	155
지배적 여성주의	6.80(1.98)	10.77(4.85)	-7.55***	129
경쟁적 성역할분화	7.80(3.91)	20.36(6.71)	-16.19***	156
적대적 이성애	8.15(3.21)	12.80(5.40)	-7.40***	160
온정적 성차별주의	31.83(10.52)	45.66(15.63)	-7.36***	171
보호적 여성주의	14.35(5.85)	19.16(7.82)	-4.95***	181
보완적 성역할분화	9.63(4.06)	12.80(4.80)	-5.06***	192
친밀한 이성애	7.85(4.05)	13.70(6.17)	-7.95***	168

\*\*\*p<.001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간의 관계

연구문제 4를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가자들의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

와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표 4).

통제행동,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각각의 발생빈도 인식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

표 4.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과 양가적 성차별주의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1											
2	.63**	1										
3	.50**	.66**	1									
4	.53**	.60**	.57**	1								
5	-.39**	-.39**	-.45**	-.48**	1							
6	-.25**	-.25**	-.25**	-.36**	.83**	1						
7	-.42**	-.41**	-.49**	-.50**	.91**	.61**	1					
8	-.29**	-.31**	-.34**	-.35**	.85**	.67**	.62**	1				
9	-.31**	-.29**	-.25**	-.31**	.62**	.56**	.51**	.58**	1			
10	-.29**	-.23**	-.20**	-.23**	.38**	.32**	.31**	.37**	.87**	1		
11	-.27**	-.30**	-.22**	-.22**	.54**	.50**	.43**	.51**	.79**	.53**	1	
12	-.21**	-.21**	-.22**	-.34**	.67**	.61**	.56**	.60**	.82**	.33**	.52**	1

\*p<.05, \*\*p<.01, \*\*\*p<.001

1: 통제행동 발생빈도 인식, 2: 심리적 폭력 발생빈도 인식, 3: 신체적 폭력 발생빈도 인식, 4: 성적 폭력 발생빈도 인식, 5: 적대적 성차별의식, 6: 지배적 여성주의, 7: 경쟁적 성역할분화, 8: 적대적 이성애, 9: 온정적 성차별의식, 10: 보호적 여성주의, 11: 보완적 성역할분화, 12: 친밀한 이성애

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적대적 성차별주의가 강할수록 모든 유형의 데이트폭력의 발생빈도를 낮게 추정하였으며,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들 모두 모든 유형의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수준과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 역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데이트 폭력 발생빈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제행동,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 각각에 대한 발생빈도 인식을 기준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예측변인으로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을 설정하였다.

먼저, 기준변인을 통제행동의 발생빈도 인식으로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적도 여섯 가지(지배적 남성주의, 경쟁적 성역할분화, 적대적 이성애, 보호적 남성주의, 보완적 성역할분화, 친밀한 이성애)를 예측변인으로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경쟁적 성역할분화와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보호적 남성주의와 친밀한 이성애가 포함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이 구성되었고( $F(3)=19.13, p<.000$ ),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약 22%로 나타났다. 즉, 경쟁적 성역할분화, 보호적 남성주의 태도가 강할수록, 친밀한 이성애 태도가 약할수록 실제 현실에서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행동이 발생할 빈도를 낮게 측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표 5).

다음으로, 심리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을 기준변인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예측변인을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보완적 성역할분화가 포함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32.75, p<.000$ ), 해당 모형의 설명력은 약 25%였다. 성별과 보완적 성역할분화가 심리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졌다. 다시 말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일수록, 보완적 성역할분화 태도가 강할수록 데이트 관계에서 심리적 폭력이 발생할 빈도를 낮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6).

세 번째로, 신체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을 기준변인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예측변수들을 투입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경쟁적 성역할분화만으로 구성된 모형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F(1)=62.96, p<.000, R^2=.24$ ). 즉, 경쟁적 성역할분화 태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실제

표 5. 통제행동 발생빈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i>B</i>	$\beta$
상수	4.55	
경쟁적 성역할분화	-.05	-.44
보호적 남성주의	-.03	-.25
친밀한 이성애	.03	.17

표 6. 심리적 폭력 발생빈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성별: 여성 = 1, 남성 = 2)

	<i>B</i>	$\beta$
상수	5.00	
성별	-.80	-.42
보완적 성역할분화	-.03	-.16

표 7. 신체적 폭력 발생빈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상수	3.83	
경쟁적 성역할분화	-.06	-.49

표 8. 성적 폭력 발생빈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성별: 여성 = 1, 남성 = 2)

	B	β
상수	5.14	
성별	-.72	-.33
경쟁적 성역할분화	-.03	-.25

데이트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이 발생하는 빈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마지막으로, 성적 폭력의 발생빈도 인식을 기준변인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예측변인들을 가지고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요인인 경쟁적 성역할분화로 구성된 모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F(2)=42.38, p<.000, R^2=.30$ ). 즉 여성보다 남성일수록, 경쟁적 성역할분화 태도가 강한 사람일수록 실제 데이트 관계에서 성적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낮게 인식하는 경향성을 보였다(표 8).

## 논 의

본 연구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남녀 203명을 대상으로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에 따

른 데이트폭력 인식의 차이를 분석하고 그 관계를 조사하였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가자와 시나리오 상의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데이트폭력 심각성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적 폭력을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성별과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적 폭력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남성 피해자의 성적 폭력에 대해서 심각성을 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에 통제행동,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이 남성보다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더 높게 인식한 선행 연구들(하예지, 서미경, 2014; Stewart. Moore, Crone, DeFreitas, & Rhatigan, 2012; Xenos & Smith, 2001)과는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데이트폭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데이트폭력을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성별을 막론하고 증가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연구 참가자들이 도덕적 바람직성 때문에 실제 인식보다 설문에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더 높게 평가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전히 데이트폭력 중 성적 피해를 입은 남성에 대하여 남성 참가자들이 그 심각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데이트폭력에서 피해자의 성별 및 이를 인식하는 사람들의 성별이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 참가자 및 피해자의 성별에 따라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피해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성이 여성보

다 데이트폭력의 하위유형 모두(통제행동,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에서 발생 빈도를 유의하게 낮게 평가하였다. 앞서 남녀 모두 데이트폭력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남성이 여성보다 현실에서 데이트폭력이 덜 발생한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범죄에 대한 인식이 해당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 및 정책에 법 감정과 여론 등의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박순진, 2017; 이소영, 박지선, 2017), 데이트폭력의 발생빈도 인식에 있어서의 이러한 성차는 데이트폭력 관련 법 제정 촉구나 데이트폭력 범죄자 양형 기준 강화 등 대응 정책 촉구에 있어서의 온도 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여성보다 남성이 더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성차를 조사한 선행연구들(조무용, 김정인, 2016; 홍영은, 박지선, 2018)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발생빈도 인식과 양가적 성차별주의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심리적 폭력은 성별과 온정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척도인 보완적 성역할분화와 관련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제행동과 신체적 폭력, 그리고 성적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요인은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하위척도 중 하나인 경쟁적 성역할분화였다. 남성의 역할과 신체적 특성이 여성보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지위에 더 적합하다는 경쟁적 성역할분화 의식이 강한 남성일수록 여성보다 통제행동과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의 발생 빈도를 낮게 추정한다는 연구 결과는,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데이트 관계에서 통제권을 얻기 위하여 데이트폭력을 용인하는 사고방식과 관련이 있다.

또한, 이러한 경쟁적 성역할분화는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과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고정관념을 수용하는 사람일수록 성폭력 허용도가 높고(심정신 등, 2012),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선행 연구들(김은경, 엄애선, 2010; 손강숙, 정소미, 2016; 이은숙 등, 2014)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이다.

데이트폭력 발생빈도에 관한 인식은 데이트폭력 인식을 연구한 다른 연구들에서는 아직 많이 다루어지지 않은 변인이다. 데이트폭력의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은 남성에 비하여 여성이 높게 나타났고, 이는 여성이 데이트폭력이라는 범죄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자신 또는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감이나 우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여성이 남성보다 전반적으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더 느낀다는 선행연구(조은경, 2003) 결과와도 일치한다. 한편, 데이트폭력 심각성 인식이나 허용도를 조사한 선행연구(하예지, 서미경, 2014)에서도 데이트폭력의 심각성 인식은 남녀 모두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들은 언론매체들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정보나 보도 등을 통해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지만, 데이트폭력이 실제로 본인이나 주변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에 있어서는 뚜렷한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국내에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연구는 데이트폭력 가해, 피해 요인이나 데이트폭력의 관계 지속 요인, 또는 데이트폭력의 위험 요소를 파악하는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연구되어왔으나, 데이트폭력 인식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기존에는 데이트폭

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트폭력 경험유무에 한정짓거나(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폭력을 경험한 사람 중에서 데이트폭력 허용도와 의 관계를 조사하는 방향(임채영 등, 2010; Capezza & Arriaga, 2008; Witte & Mulla, 2012)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경험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데이트폭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데이트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라는 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데이트폭력 인식 연구를 보다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가자의 나이가 20대에 집중되어 있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후속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연령대의 연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 태도와 같은 요인들이 데이트폭력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색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트폭력 인식 연구는 대부분 가해경험이나 피해경험과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대한 인식을 다룬 반면, 본 연구는 데이트폭력 심각성 및 발생빈도에 대한 인식을 다루었다. 그러나 2017년 7월 국회에서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고, 8월에 상습 데이트폭력 등에 대한 가중처벌법이 발의되었으나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안은 여전히 입법화되지 않은 시점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에 관한 비난과 책임, 그리고 가해자에 대한 양형판단 등을 조사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책임 및 처벌에 대한 인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실제 데이트폭력 피해경험 유무에 따라 이러한 책임

및 처벌, 양형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데이트폭력에 관한 보다 실무적이고 정책적인 함의를 제시하는 연구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에서 입법화 논의가 일고 있는 데이트폭력과 관련된 법률들은 데이트폭력이 발생한 이후의 사후처리에 더 초점이 맞추어진 법률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가 사후조치 보다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그것을 예방하는 데 일조 할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한다.

## 참고문헌

- 김시원, 박 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에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 김은경, 엄애선 (2010). 가정폭력 목격이 자녀의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성역할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759-777
- 김재은, 김지현 (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 집단과 여성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1), 187-205.
- 김태규, (2018.10.03.). 작년 데이트 폭력 '하루 23건꼴' 발생. 한겨레 뉴스.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336.html](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4336.html)에서 검색
- 김혜선, 박지선 (2018). 동물학대의 재범방지 및 처벌강화 인식에 대한 연구: 성별 및 폭력허용도를 중심으로. 교정연구, 28(3), 51-82.
- 대검찰청 (2017). 2017 범죄분석. 서울: 대검

- 찰청.
- 박경은 (2017). 결혼적령기 남성의 심리적 데이트폭력 경험. *상담학연구*, 18(4), 409-430.
- 박경은, 유영권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심리내면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11-742.
- 박순진, (2017). 범죄에 대한 과장된 인식이 범죄의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12(2), 105-135.
- 박지선, 박상조 (2013). 언론의 범죄 관련 보도가 대중의 범죄 발생 인식에 미치는 영향. *경찰학논총*, 8(1), 295-316.
- 서경현 (2009). 이성관계에서 행해지는 데이트폭력에 관한 연구의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4(4), 699-727.
- 서윤정,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학*, 7(1), 33-59.
- 손강숙, 정소미 (2016). 여대생의 성역할 고정관념과 데이트폭력허용도의 관계에서 성적 자기주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3), 441-457.
- 손문숙, 조재연 (2016). 데이트폭력 피해 실태조사 결과와 과제. *한국여성의전화*, 1-37.
- 손연우, 권호인 (2018).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파트너 통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3), 549-566.
- 신지연, 최수미 (2017). 거부민감성, 비대칭 패러다임이 데이트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4), 533-549.
- 심정신, 이영숙, 오숙희 (2012). 대학생의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인지도 및 성폭력 허용도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8(2), 117-125.
- 안상수, 김혜숙, 안미영 (2005). 한국형 양가적 성차별주의 척도(K-ASI)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2), 39-66.
- 오세연, 광영길 (2011). 데이트폭력의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사례분석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 31, 3-27.
- 오윤희, 임성문 (2018). 대학생이 지각한 가해동기와 데이트폭력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3(2), 223-245.
- 우현진, 장숙희, 권호인 (2017).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315-335.
- 윤병해, 고재홍 (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이: 강간통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1(1), 1-19.
- 이소영, 박지선 (2017). 가출청소년에 대한 여대생의 인식: 실태조사와의 비교 및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3), 371-389.
- 이영숙 (1998). 이성교제 중 발생한 폭력. *대한가정학회지*, 36(4), 49-61.
- 이윤연, 장현아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폭력 피해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91-209.
- 이은숙, 강희순 (2014).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역할 고정관념, 성적 자기주장성, 성폭력 인지도, 성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성폭력 경험. *동서간호학연구지*, 20(1), 48-56.
-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폭력적 데이트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83-995.
- 임채영, 정소영, 이명신 (2010). 대학생의 폭력

- 인식이 데이트폭력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만족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5, 147-179.
- 조무용, 김정인 (2016). 성평등의식과 성차별주의가 스토킹통념 지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1(1), 109-134.
- 조은경 (2003).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9(1), 1-21.
- 진경선, 김수연, 정유경, 송현주, 송민 (2017). 단채카톡방 언어성폭력에 대한 태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289-313.
- 최연숙, 이은희, 이은주 (2017). 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성고정관념, 폭력인식과 데이트폭력 대처방식과의 관계, 계명간호과학, 21(1), 23-33.
- 하예지, 서미경 (2014). 데이트 폭력 인식과 폭력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30(4), 79-103.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오, 박지선 (20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18.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Abrams, D., Viki, G. T., Masser, B., & Bohner, G. (2003). Perceptions of stranger and acquaintance rape: The role of Benevolent and Hostile Sexism in victim blame and rape procliv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1), 111-125.
- Basow, S. A., Cahill, K. F., Phelan, J. E., Longshore, K., & McGillicuddy-Delisi, A., (2007). Perceptions of relational and physical aggression among college students: Effects of gender of perpetrator, target, and perceiver,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31(1), 85-95.
- Capezza, N. M. & Arriaga, X. B. (2008). Factors associated with acceptance of psychological aggression against women *Violence against women*, 14(6), 612-633.
- Fiske, S. T., Xu, J., Cuddy, A. M., & Glick, P. (1999). (Dis)respecting versus (dis)liking: Status and interdependence predict ambivalent stereotypes of competence and warmth. *Journal of Social Issues*, 55, 473-489.
- Glick, P. & Fiske, S.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491-512.
- Jackman, M. R. (1994). *The velvet glove: Paternalism and conflict in gender, class, and race rel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loyde, S. A., Koval, J. E., & Cate, R. M. (1989). Conflict and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in dating relationships Emerging Social Issues*, 126-142.
- Makepeace, J. M. (1981) Courtship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Family Relations*. 30(1), 97-102.
- Ronfeldt, H. M., Kimerling, R., & Arias, I. (1998).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power and the perpetration of dating violence.

-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1), 70-78
- Rusbult, C. E., Martz, J. M., & Agnew, C. R. (1998). The investment model scale: measuring commitment level, satisfaction level, quality of alternatives, and investment size. *Personal Relationships*, 5, 357-391.
- Sorenson, S. B., & Taylor, C. A. (2005). Female aggression toward male intimate partners: An examination of social norms in a community based samp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9(1), 78-96.
- Stewart, C., Moore, T., Crone, T., DeFreitas, S. C., & Rhatigan, D. (2012). Who Gets Blamed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The Relative Contributions of Perpetrator Sex Category, Victim Confrontation, and Observer Attitud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18), 3739-3754.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Williams, J. E., & Best, D. L. (1990).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Vol. 6 Measuring sex stereotypes: A multination study.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Witte, T. H., & Kendra, R. (2010). Risk recognition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5(2), 2199-2216.
- Witte, T. H. & Mulla, M. M. (2012). Social norms for intimate partner violence in situation involving victim infidelity,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11), 1103-1119.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Preventing intimate partner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Taking action and generating evidence.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Xenos, S., & Smith, D. (2001). Perception of rape and sexual assault among Australia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0(11), 1103-1119.

1 차원고접수 : 2019. 01. 30.

심사통과접수 : 2019. 03. 19.

최종원고접수 : 2019. 03. 28.

## The effect of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on the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Juryeong Oh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Although the severity of dating violence increases, research on dating violence remains scarce and most studies on dating violence focus on reporting demographics of dating violence. Perception of crime influences offender punishment and sentencing, as well as law making, therefore investigating perception of crime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including its severity and frequencies, and how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ffects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We gave a total of 203 participants scenarios regarding four types of dating violence(control behavior, emotional violence,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evaluated perception of severity and frequencies of dating violence. We conducted independent samples t-test, correlational analyses, and regression analyses to examine how gender and ambivalent sexism affected perception of dating violence. As a result, respondents perceived dating violence as considerably severe, and the difference by gender was found only in the severity of sexual violence against male victims. Male respondents evaluated sexual violence against male victims less severe than female respondents.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dating violence differed by gender of respondents: Male respondents perceived dating violence less frequent than female respondents did. Males displayed higher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attitudes than females. Furthermore,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 a sub-factor of hostile sexism, affected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control behavior, physic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and gender was highly related to perception of frequencies of emotional violence and sexual violence. Finally, we discussed practical ap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made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Key words* : dating violence, perception of crime, gender difference, ambivalent sexism, competitive gender differentiation